

제공일자	2013. 11.12(화)	담당자	오승연 연구위원
홍보담당	김세환 부장(02-3775-9051)	연락처	02-3775-9036, 010-7223-5795 총2매

제목 : 프랑스 민영 장기요양보험 시장의 상대적 성공요인과 시사점

- 보험연구원(원장 강호)의 오승연 연구위원은 『민영 장기요양보험퍼즐과 프랑스 사례의 시사점』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음(계간 보험동향 2013년 가을호 테마진단).
- 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민영 장기간병보험시장의 비중은 미미함.
 - 민영 장기간병보험이 전체 장기요양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미국(7%)과 일본(5%)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% 미만임.
- 민영 장기간병보험 시장이 가장 발달된 나라는 미국과 프랑스인데, 보험 침투율 측면에서 프랑스 시장이 상대적으로 성공적임.
 - 미국은 65세 이상 인구의 10% 미만이 보험에 가입한 반면, 프랑스는 60세 이상 인구의 25%가 가입해 있음.
- 미국이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적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달리, 프랑스의 공적 장기요양보험은 60세 이상 전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공·사 보험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음.
 - 프랑스 공적 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의 폭이 0~90%로 매우 큼.
 - 본인부담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상위 소득계층의 경우 정액형 민영 간병보험에 가입하여 본인부담금을 커버하고 있음.

- 미국의 실손형 보험에 비해 프랑스의 정액형 장기간병보험의 수요가 큰 이유 중 하나는 보험이 “자식이 제공하는 돌봄”을 구축(crowding out)하는 효과가 작기 때문이다.
- 실손형 보험에 가입한 경우 현물형태로 간병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시장에서 요양서비스를 구매하여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식 수발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 자식은 부모에 대한 수발행위를 줄이게 됨.
- 하지만 부모들은 낯선 간병인보다 자식으로부터 돌봄 받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민영 간병보험을 구매하려 하지 않음.
- 정액형 상품은 매달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으므로 돌봄을 제공하는 자식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는 등 수급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실손형에 비해 자식 수발을 구축하는 효과가 작고 따라서 수요가 커질 수 있음.
- 또한 실손형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고 상품이 단순하며 심사과정이 간단하여 소비자의 이해도가 높고 접근이 용이함.
- 프랑스에서 단체 장기간병보험의 시장 규모는 전체 시장의 45%로 다른 나라에 비해 단체보험이 활성화 되어 있어 민영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자발적 수요가 낮은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시키고 있음.
- 프랑스의 상대적인 성공요인은 공·사 장기요양보험의 보완관계, 정액형 상품의 장점(현금급여의 자유로운 사용, 저렴하고 단순한 상품구조), 단체보험의 활성화 등으로 분석됨.

첨부 : 테마진단 “민영 장기요양보험퍼즐과 프랑스 사례의 시사점”. 끝.